<15-1> 현대미술과 사물

1) 앵그르 <오달리스크> / 마네 <올랭피아> 1865 // 앵그르 – 음영. 실제를 잘 묘사하려고 노력.’회화는 자연을 베끼는 것이다’마네 – 평면적. 시선이 도발적.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 옛날사람들이 앵그르처럼 그리고 있을 때, 캔버스의 표면이 평면하다는 것, 붓터치의 물질성. 회화의 조건(평면성, 물질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모더니즘 미술은 평면성과 회화. 평면성과 물질성을 향해서 발전한다. 회화는 자연과 분리된 회화 그 자체의 특성 보이려 함. 회화의 특성 (평평한 표면, 붓터치). 평면성과 물질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다 보니까

4) 피카소 <바이올린> 1912 / 5) 피카소 <병, 유리, 바이올린> 1913 // 신문지, 벽지 붙임.

물질성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사물을.. 신문지 벽지 따위를 과감하게 도입하면서 작품에 붙이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회화가 자연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실제의 신문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고, 회화로 들어오면서 회화의 기능 회화의 색채로서 보여지게 됐다. 회화가 베끼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회화 그 자체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사물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화가들은 과감하게 사물을 미술로 직접 끌어들이게 됨.

3) 피카소 <칸 바일러의 초상> 1910 / 피카소 <아코디언을 켜는 남자> 1911 // 이 남자의 **본질**을 보여주려 한다. 본질이란, 앞에서 보고 보이는데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의 존재. 앞 뒤 옆에서 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본질이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그 것을 회화의 속성으로 넣는 것. 내면, 회화가 가지고 있는 평면성 .. 회화의 리얼리티를 탐구.

6) 뒤샹 <자전거 바퀴< 1913-1917 // 세기의 사기꾼. 세상에 이게 무슨 작품?? .. 자전거 바퀴 사놓고 이게 작품이다..

7) 뒤샹 <샘> // 화가가 전시장에서 직접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사물을 선택하기만 해도 그것이 미술작품이 된다. 미술의 고급스러움에 반격(도전)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함.

사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적 형이상학적인 것이 흔들리게 됨.

그런데,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8) 칼 안드레(Carl Andre, 1935-) <Equivalent VIII> 1966 / 9) 칼 안드레 1960, 칼 안드레 1976 // 벽돌을 착착 쌓아놓은 것. 바닥에 펼쳐놓은 것. 이 것이 등장한 시기가 팝아트가 유행하고 있을 1963-65년경에 **미니멀리즘**(미니멀아트)이라는 미술운동 일어나게 됨.

산업적인 재료 사용. 굉장히 규칙적. 어디가 중심이고 주변인게 없다.-->전체성 가짐.

또한 구성에 있어서, 하나위에 하나.. 하나위에 하나.. 비관계적 구성.<->관계적구성 : 세잔느.

산업적인 재료 사용. 있는 재료 그대로 사용🡪사물로의 환원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평면성, 물질성🡪모더니즘 미술

회화는 회화 다워야. 문학은 문학다워야 조각은 조각 다워야. 모더니즘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장르의 순수성.

10) 댄 플레빈 <무제> 1972 / 댄 플레빈 <무제> 1990 //

벽면에 형광등을 붙여넣는 것 까지 등장. 형광등 사용해서 물질을 강조. 이게 회화인가 조각인가? 평면성, 물질성 향해 모더니즘 미술이라 해놓고, 시간 지날수록 사물 도입해서 화면 붙이다가 부조 같기도 하고 조각 같기도 한 결과 발생.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닌.. 회화도 조각도 아닌 특수한 사물이다.

미니멀리즘은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닌 특수한 사물이다. 그렇게 하면 장르가 혼성이 일어나고 경계가 흐려짐.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 미술의 종착이자 사물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 모더니즘의 종착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 사물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장르가 흔들림. 모더니즘의 종말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 모더니즘 거의 끝나감..

모더니즘적인 특징 : 물질성. 전면성(전체성). 명확성. 비장식성. 또한 엘리트주의 적이다.(굉장히 개념 강조).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요소 등장 : 사물을 너무 강조해서 사물을 가져오다 보니 사물로의 환원. 장르가 흔들림. **장르의 불분명!!!!!!!!! 우연성 개입!!!!!!!! 연극성 개입!!!!!!!!!!**

특별한 공간에 자기가 있는 듯한 느낌. 관람자와 작품이 서로 상호교환. 연극적이다.

물질 너무 강조하다보니 관람자가 손대다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변화. 모더니즘 미술은 보통 시간성 개입 x.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시간성 개입. 시간도 개입 연극적 개입 우연성 개입 장르가 불분명** 1960년대부터는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 그 전환에서 큰 역할은 한 것이 사물로의 환원. 사물!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미술 운동이 미니멀리즘(미니멀아트).

이런 작품은 조수를 썼을까? 아이디어를 내고 조수 사용. 조수 필요! 미술가의 자전적 흔적이 제거되는 것이 특징. 아닌 것 같이 하면서도 작가가 작가의 개념 굉장히 주장. 미니멀리즘도 주장함. 어쨌든 자아의 흔적 보다는 산업화가 더 많이 들어감.

9) 칼 안드레 1960 / 칼 안드레 1976 //

팝아트도 모더니즘 수용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행.

회화냐 조각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물질성 너무 강조하다 보니 아예 사물 자체가 작품이 되게 되고 그래서 회환지 조각인지 장르의 불분명.

사물 본질 그 자체를 가지고와서 작품을 하는 것이다.

이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모더니즘&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모더니즘 : 산업적이다. 산업화 체계적 간결 탈중심성 전면성. 모더니즘적.

포스트 모더니즘 : 장르의 불분명 또한 시간성 개입 또한 낡은 나무에서 느껴지는 현재와 과거와의 교차. 비경계성.

규칙성. 전체성.

빛이 퍼지면서 관람가와 관계 중요. 연극적. 장소가 중요. 장소중심성. 개념을 강조.

미니멀리즘 이후에는 장소성 발전. 아예 미술관 밖으로 뛰쳐 나가게 됨 ->대지미술. 퍼포먼스.

모더니즘에서 탈피하는 여러가지 미술이 일어나게 됨.

7) 뒤샹 <샘> // 작가가 작품이다 라고 지칭하기만 하면 안티아트. 미술가의 위치를 올려놓음.

5) 피카소 <병, 유리, 바이올린> // 회화 자체의 형태와 구성이 중요. 사물을 회화를 위해 사용.

13)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 <달리는 벽 : 캘리포니아> // 대지에 인간의 흔적을 남기려고 대지미술. 대지미술의 가장 큰 문제: 환경훼손.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공격. 마치 예술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함. 모더니즘 미술의 시작은 미술이 자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되는 것. 미술은 미술로서 독립. 시간이 가니까 자연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대지미술. 자연에 대한 인간(예술)의 우월성.

회화는 자연에서 독립된 존재. 본질 물질성 평면성 강조하면서 시작. 세월이 흘러서 100년가까이 되니 여러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됨. 여러가지 방향에 현상이 나타나게 됨. 물질성 강조하다 보니 물질 도입. 물질 그 자체 만으로 물질로의 환원. 이와 같은 1960년대부터 미술운동.

작품과 관람자간의 상호관계 중요. 이제 더 이상 미술관 안에 있을 필요 없다. 미술은 대지로 향하게 됨.

미술을 위한 미술(자연으로부터 독립)->사물도입 되면서 1970년대 가게 되면 모더니즘에서 이탈. 포스트모더니즘 적인 현상.

11) 로버트 모리스 <무제> 1968 / 로버트 모리스 <Untitled(Tangle)> 1967 // 사물을 넘어서는 사물성에 물질성 강조. 사물을 도입했다가 사물을 넘어서게 됨. 그런 과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행.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1) 몬드리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1921 / 몬드리안 <구성> 1921-25 //

당시 이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못했던 시절에 이 것이 그림이다.하고 내놓음.

모더니즘 미술의 특징 – **창조**. 창조가 흔들린 것이 사물이 도입되면서 흔들림.

새로움의 충격.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던져야 함. 정말 창조해야 함.

모더니즘 미술의 가장 큰 특징 – 창조!!! 그리고 미술가는 창조가(신).

모더니즘 미술은 창조에 대한 고통,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음.

2) 피터 블레이크 <안녕하세요, 호크니씨> 1981-83 // 모더니즘 미술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것이 그림이 될 수 없다 할 때 보여줌으로써 창조의 희열 느낌. But 피터 블레이크는 쿠르베 <안녕하세요, 쿠르베씨> 1800년대 작품에서 그대로 보고, 약간의 변형(개작)을 통해 이 작품을 만듦. 좀 더 현대화 된 것 빼고 큰 차이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창조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됨. **차용**!!!!!!!!!!!!!!!!!!!!!!!!

모더니즘은 자아 강조. 근대 사회의 산업혁명 이후에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언제나 혁신. 개혁. 도약. 발전. 이와 같은 발명.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모더니즘.

작가중심. 영웅성. 보편성. 추상미술이 일어남.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 차용. 개작이 얼마든지 가능.

3) 피카소 <라스메니나스> 1957 / 벨라스케즈 <시녀들> 1656 / 피카소 <풀밭 위의 점심식사> 1961 // 44번이나 개작. 포스트모더니즘 되면서 피카소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

작가는 신, 창조자가 아니고, 그냥 직업. 작가의 위치 떨어짐.

작가도 새로운 작품이 아니라 차용 복제 개작 허용.

4) 셰리 레빈 <샘 (뒤샹의 모작)> 1991 / 뒤샹 <샘> 1917 // 뒤샹을 또 한번 복제함으로써 상업성, 대량생산 보여줌. 미술은 작가의 발명품이 아니다. 작가는 주변의 것을 얼마든지 차용할 수 있다. 작가의 죽음을 확인했다. 이미지 양식을 구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셰리 레빈의 행위는 역사적 담론을 기억하는 것.

모더니즘 -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양식 구축

포스트모더니즘 - 역사적 담론을 기억하고자 작품 제작. 역사 강조.

(창조자로서의)작가의 죽음. 원본에서의 차용. 장르의 와해.(회화 건축 조각 등 다 섞일 수 있다). 다원성. 해체주의(해체현상). 개별성. 지엽성. 상대성. 또한 **이야기의 부활. 구상미술이 훨씬 더 유행(구상 선호).**